

대사도 마음대로... 연기도 마음대로

'자유 From B to C' 영화 '트루먼 쇼'처럼 다양한 상황·행동 표현

창작집단 V.O.I.C.E.2(브이)의 '자유 프롬 비 투 시(From B to C)'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연극이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자유를 추구한다. 1961년 사회주의국가에서 자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폴란드 작가 슬라보미르의 '스트라피츠'가 모티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트 등으로 잘 차려 입은 두 지식인의 옷을 권력을 상징하는 손이 계속 벗겨나간다. 마지막에는 이들의 손도 묶이고 눈까지 가려지고 끝이 난다.

'자유 프롬 비 투 시'는 출연 배역을 일곱으로 늘렸다. 형사(김지운), 국회의원 예비자후보(정수연), 천문학자(강혜련), 작가(최아령), 손해 사정사(전호현), 청년 장사꾼(김희준), 전도사(김현기)다. 일곱 배우의 즉흥연기가 기반이 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배역만 배우들에게 주어졌을 뿐, 대본도 없고 그날 상황에 따라 독백을 비롯해 모든 대사를 만들어나간다. 이들은 어느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 인물들끼리 부딪히는 장면까지 매일 다르다. 마지막 몇몇 인물은 공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 역시 공연마다 남는 배역이 다르고 그 숫자도 다르다.



극의 막판 영상 속 인물들이 갇혀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댓글을 남기는 설정은 류 연출의 생각을 반영하며 섬뜩함을 만든다.

영상 속 인물들은 속웃만 입고 등장한다.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따라해야 하는 메시지로 해석, 배우들도 속웃만 남기고 벗는데 이 또한 매일 당사자가 다르다. 7일 서울 문래예술공장 박스아트 프레스홀에서는 국회의원 예비자후보 역의 정수연과 청년 장사꾼 김희준만이 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았다. 천문학자 역의 강혜련만 웃을 벗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일 관객이 결말에서 느낄 메시지 또한 상이하다. 정수연은 20대 때 비뚤게 살아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고 말했다. 아등바등거려도 살기 힘든 현재 청년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무대는 객석과 분리되지 않고 한 평면이다. 관객은 군데군데 나무상자로 겹겹이 쌓은 방석이 주저 앉으면 된다. 바로 자신의 앞에서 또는 옆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보고 싶노라면, 관객 스스로 배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공간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된다.

번갈아가며 흘러나오는 총 7개 영상에는 히틀러, 시무실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악채널 엠넷의 '프로듀스 101'이다. 46개 기획사에 소속된 101명의 연습생이 최종 11인 그룹에 들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초반이 프로그램의 주제곡 제목은 '픽 미', 즉 나를 뽑아줘였다.

류 연출은 이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졌다"며 "나 역시 유학을 다녀와서 '뽑아주세요'하고 다녔다"고 털어놓았다. "101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춤을 추는 등 획일화했는데 픽 미'라고 외친다. 짧은 식견이지만 권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자 했다. 그건 보이지 않는다. 꾸준히 삶에서 주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유 프롬 비 투 시'의 막판, 영화 '트루먼 쇼'처럼 이들이 갇혀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네티즌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에 대해 댓글을 남기는 설정은 류 연출의 생각을 반영하며 섬뜩함을 만든다.

류 연출은 영국 런던대학교 연극대학인 '로열 센트럴 스피치 & 드라마 스쿨'을 나왔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연기와 언어를 잘 소화하는 배우들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로 그녀의 전문 영역은 보이스 코치다. 지난해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오른 국립극단의 연극 '큰 세 여자'에서 이 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배우들의 발성과 라인, 그들이 음성에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우들이 한 무대에 고정되지 않고 블랙박스 시어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사를 해 음성이 다양하게 울려 퍼지는 '자유 프롬 비 투 시'에서 류 연출가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셈이다.

12일까지 조연출 방태현, PD 키노, 기획 박진선, 무대감독 오지연, 조명 유성희, 전시 감독이 움직임 백수연 극작황정은 창작집단 V.O.I.C.E.2(브이), 010-2960-1804 /정해은 기자

'난타' 중국 30개 도시 투어

년별 퍼포먼스 '난타'가 5일 허난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30개도시 투어공연을 시작했다.

한국 공연 중 최대 규모의 중국 장기투어로 2011년 함께했던 중국의 베이징 보리극원관리유한공사의 러브콜을 받아 진행한다.

중국 북부에 주력한다. 엔타이 웨이팡 위해, 칭다오, 다롄, 선양, 산시, 타이저우, 후어페이, 난징, 미안산, 창수, 장지아강, 윈저우, 닝보어, 저우산, 창저우, 우시, 쿤산, 이싱, 시아먼, 이춘, 지안, 충칭, 황강, 우한, 한단, 우란차이터, 상하이 등지다.

최근 광저우에 오른 난타전용극장과 함께 '난타'를 현지에서 알리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연제작사 PMC프러덕션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중국투어를 발판으로 중국 공연시장 진출에 집중한다"며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국과 '난타'가 서로 협력하면서 아시아의 공연 시장을 넓히고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국학 대중화·디지털화" 국학진흥원 20주년 기념식

성년이 된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이용두)이 7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의 길을 모색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20년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이었다"며 "민간소장 기록유산센터와 국학정보센터 신설을 통해 앞으로 20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1996년 3월7일 안동시 동부동 옛 군청청사에서 직원 8명과 연간 예산 약 7억원 규모로 출발했다. 지금은 정규직원만 53명에 연간 예산 230여억 원의 기관으로 거듭났다.

직원 수 7배, 예산 규모는 30배 이상 성장했다. 무엇보다 멸종 및 훼손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기록지료를 수집·보존해 전통기록유산 보존 전문기관으로 도약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소장 기탁운동으로 전국의 국학자료 소장 기관 가운데 최대량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11월 최초 기탁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말 현재 약 43만80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기탁된 자료는 그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 기록지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국보 1점(장비목)과 최근 보물 1895호로 지정된 경자본 퇴계문집 목판을 비롯한 보물 20종 1844점이 보가다 시·도 유형문화재 26종 1918점, 문화재 자료 5종 216점, 그리고 등록문화재 691점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민간소장 기록 자료인 유교책 판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정해은 기자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라 바야데르' 을 첫 공연

국립발레단, 3월 30일~4월 3일

국립발레단이 클래식 드라마 발레의 대명사인 '라 바야데르' 로 올 시즌을 시작한다.

2013년 예술의전당 25주년 기념공연으로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당시 '발레계의 불꽃버스터'로 불리며 92%의 티켓 판매율을 기록했다.

2014년 강수진 예술감독 부임 첫 번째 공연 작품이기도 하다. 국립발레단 단원들의 기량이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한 몫을 한 공연으로 국립발레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는 1877년 마리우스 피티파가 안무한 작품을 1991년 유리 그라기보비치가 볼쇼이발레단을 위해 재해석한 버전이 토대다.

2013년 국립발레단을 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재탄생했다. 당시 이탈리아 디자이너 루이지 스피나텔라가 무대와 의상을 디자인했다.

프랑스어로 회교사원의 무희를 뜻하는



'라 바야데르'는 이국적인 인도 황금제국이 배경이다. 사원의 아름다운 무희 '나키야',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전사 '솔로르', 무희에게서 전사를 빼앗으려는 공주 '갑자타', 무희에게 욕망을 품은 최고 승려 '브리만', 신분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과 배신을 그린다.

1800년 필리포 타길리오니가 괴테의 시에서 소재를 얻어 같은 이름의 오페라 발레로 만들었다.

40년 후 러시아 황실 발레단의 마스터로 있던 피티파가 이 오페라 발레의 동양적

요소에 끌렸다.

'라 바야데르'는 피티파의 버전을 토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졌다. 피티파 버전을 기본으로 3막 '명령의 왕국'이 파날레를 장식하는 차부카니 버전, 세르게예프 버전, 누레예프 버전과 2막을 명령의 왕국으로 구성하고 솔로르와 갑자타의 약혼식과 사원의 붕괴를 끝으로 3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카로바 버전 등이 있다.

국립발레단의 그라기보비치 버전은 솔로르의 독백으로 마무리된다. 국립발레단은 "낭만발레 작품인 '지젤'의 마무리와 거의 흡사하다"며 "'라 바야데르'를 '지젤'의 동양버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무대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드만 포겔이 솔로르로 나선다. 30일부터 4월3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감독 강수진, 지휘 주디스 안 연주 코리안스키오케스트라, 5000~8만 원(30일 문화가 있는날 4월3일 KNB 해피아워로 1층 5만원·2층 3만원), 국립발레단, 02-587-6181 /정해은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시민공방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98회에 걸쳐 '무형유산 시민공방'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 과정의 하나로 홍성호(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소복장 이수자), 이재성(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이수자), 유선희(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씨가 강사로 초빙됐다.

수강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복장·사계제임과 상감기법을 활용한 수납장 만들기 ▲사기장·백제의 문양을 활용한 분청사기 만들기 ▲누비장·습누비배자 만들기 등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 공예품을 만들게 된다.

무형유산에 관심과 애정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오는 21가지 종목당 각 1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063-280-14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9일>

▷쥐띠
46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예상밖의 시발점으로 인해 마음상한 일이 생기니 미리 알고 대비하라.
72년생: 계획했던 일에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가 있다.

▷소띠
49년생: 큰 움직임이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라.
73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배울만한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도외라.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4년생: 급하게 결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주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한다.
64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첫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

▷범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절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무지한데 움직이지 마라.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할 운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라.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 나가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왕후 하다가는 시비를 면치 못한다.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시리에 치우쳐 행동하면 회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닭띠
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아프거나 다칠 수 있겠다.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개띠
48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
60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말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2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4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뒤지 않으면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당할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는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감의 모습보다는 내실을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